인문연구 제90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0, No. 1, pp.35~64
http://dx.doi.org/10.21211/JHUM.90.2

재난과 교차하는 서사

: 역사 기록 속 재난 읽기의 방법*

한순미*

〈차 례〉

1. 재난과 교차하는 서사
2. 재난을 서술하는 태도와 정치적 맥락
3. 전염병의 인식과 서사
  1) 전염의 공포에 대한 인식과 대응
  2) 전염병의 서사적 그물망
4.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역사 기록 속 재난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 하에, '교차하는 서사'라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교차하는 서사'라는 용어는 재난의 모티프를 소재나 주제로 하여 서사화한 '재난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9888)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사'에서 재난과 서사가 상호 교섭하는 지점을 드러내 읽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인식의 지층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역사 기록 속의 재난들을 다시 읽는 작업은 다양한 재난의 사례들을 단순하게 수집해 목록화 하는 일이 아니라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난을 기록해 왔는지를 분석, 해석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런 가운데 재난의 상황을 서술하는 주체의 태도와 그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재난의 경험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의 결들이 교차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재난 기록에는 특권화 된 기억과 소외된 기억이 동시에 교차한다. 그것은 재난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서술하는 주체의 입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훨씬 복잡한 서사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전염병의 위력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은 질병의 기원과 전파의 경로,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 양상 및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서사적 그물망'으로 짜여 있다.

이 글은 재난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탐구하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기록 속의 재난 읽기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구의 대상과 시공간적 범위를 달리해 다른 연구 방법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제어: 재난인문학, 재난 연대기, 재난의 기억과 인식, 특권화된 기억과 소외된 기억, 서술의 태도, 교차하는 서사, 전염병(감염병), 서사적 그물망

1. 재난과 교차하는 서사

재난과 인문학을 조합한 '재난인문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이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재난인문학이라고 하면 재난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재난을 인문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먼저 상기하는 것이다.[1] 그런데 재난의 인문학적 탐구에서 '기억과 인식', '서사와 치유'라는 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은 재난의 복잡성과 중층성, 상호 연관성을 더욱 풍부하게 살피게 한다. 그리하여 재난인문학은 역사 기록 속에 묻혀 있는 재난들에서 인간의 기억과 흔적을 발굴하는 일에서부터 재난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재난 이후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역사 속 재난 기록을 읽는 작업은 단순하게 재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류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여러 기록물에서 재난들을 수집, 분류해 그 유형과 양상을 파악하는 일은 재난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두고 일어난 여러 재난들을 연대별, 지역별, 유형별로 정리하는 일과

1) 재난인문학의 연구 주제와 대상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동아시아		연구 주제와 대상	방법론
재난인문학 Disaster Humanities	1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기억(Memory) 서사(Narrative) 치유(Healing)
	2	전쟁/학살/테러(War/Massacre/Terror)	
	3	항쟁/혁명(Uprising/Revolution)	
	4	감염병/전염병(Infectious/Contagious disease)	
	5	사건 사고(Accident)	

더불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재난들의 동일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그럼으로써 재난인문학 연구는 역사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재난을 예비하는 데에 유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컨대 인문학의 관점에서 정리할 '재난의 연대기'는 사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기록들에 묻힌 인간의 목소리와 몸짓을 발굴하는 작업에 가깝다. 그러한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재난의 경험은 간결한 기억과 서사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 이후, 사람들은 남겨진 파편들을 기록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태를 인식하는 틀을 새롭게 직조하기 시작한다. 우리 앞에 남겨진 재난의 기록들은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다양한 서사체로 직조한 인식의 흔적이다. 재난의 역사 기록은 재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상세하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경험과 기억을 서사화하는 과정을 거쳐 삭제 혹은 추가한 결과물이다. 재난 기록들은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과 함께 살아가고 극복하려 시도한 숱한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보고서에 비견된다.

따라서 재난의 역사 기록을 다시 읽는 작업은 재난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 서사, 치유해 왔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일을 요청한다. 기록 속 재난의 특수한 국면은 재난을 서사화하는 과정을 비교 검토하면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 영역들을 넘나드는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역사 기록 속 재난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 하에, 재난을 인식하고 서사화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재난과 서사가 상호 교섭하는 지점에 특히 관심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해 '교차하는 서사'라는 용어를 통해서 재난 기록에 내재한 기억과 서사의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 읽어 보는 데

에 주요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고대와 전근대, 현대의 재난 기록들과 그에 관한 몇 가지 해석들을 참조하면서 역사 기록 속 재난 읽기의 방법론을 제안하려 한다. 아울러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사례로 들어, 특정한 재난에 관한 기록을 읽는 방법론을 섬세하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해 볼 것이다.

이 글은 재난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탐구하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부족하게나마 재난 읽기의 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구의 대상과 시대적 범위를 달리해 다른 연구 방법론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2. 재난을 서술하는 태도와 정치적 맥락

재난에 관한 기록들에는 특권화 된 기억과 소외된 기억이 동시에 교차해 있다. 그것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서술하는 주체의 입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기록을 다시 읽을 때에는 재난의 상황을 서술하는 태도, 그리고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서사화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재난의 기억과 서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깃든 정치적인 맥락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에서 보듯이, "12세기 중엽 고려의 지식인들이 정리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자연재해와 왕을 중심으로 한 일들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연재해의 발생과 경과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왕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을 병치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과 세계, 인간과 역사에 관한 '사실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얽혀 전개된다.

비유왕(毗有王)은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혹은 전지왕의 서자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에다가 말솜씨가 있어 사람들이 떠받들고 중히 여기더니, 구이신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

3년 (…) 11월에 지진이 있었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12월에 물이 얼지 않았다. (…)

8년 봄 2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좋은 말 두 필을 선사하고, 가을 9월에 또 흰 매를 보냈다. 겨울 10월에 신라가 좋은 금과 빛나는 구슬을 보내 답례하였다.

14년 여름 4월 초하루 무오에 일식이 있었다. 겨울 10월에 사신을 송에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21년 여름 5월에 궁궐 남쪽 못 가운데 불이 났는데, 그 화염이 수레바퀴 같았으며 온 밤이 지나서야 꺼졌다. 가을 7월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 백성들은 굶주려서 신라로 흘러들어가는 이들이 많았다.

28년 별들이 비오듯 떨어지고 혜성이 서북방에 나타났는데, 빛 꼬리가 2장쯤 되었다. 가을 8월에 누리가 곡식을 해쳐서 흉년이 들었다.

29년 봄 3월에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가을 9월에 흑룡이 한강에 나타났다가,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하게 끼더니 날아가버렸다. 왕이 죽었다.[2)]

위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다시 분절해 읽어볼 수 있다. 먼저 비유왕(毗有王)이 태어난 후 왕위에 오른 뒤, 왕의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다. 이를 중심 줄기로 하여 왕이 수행한 일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한 일정을 언급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한 상황과 국가의 주요한 사건들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교차 서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왕의 탄생, 왕위의 등극, 왕의 행적, 그리고 왕의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일식, 혜성, 가뭄

2) 김부식, 「백제본기 제3」,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1998/2007, pp. 516-517.

과 지진 등 기이한 자연 현상을 하나로 엮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왕조의 운명과 자연재해의 상황을 교차 서술한 부분에서 재난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세계, 인간과 국가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서술하는 태도와 상관된다. 다시 말해 역사 기록에서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지식의 결"로 조직하는가, 즉 당대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난 재난의 상황에 직면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르게 질문하자면, 역사 기록에서 자연재해는 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자연 혹은 세계의 경험을 매개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 생산 행위라고 해도 좋다. 사실적 정보들이 축적되어 지식의 결은 쌓여 간다. 다만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들은 처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쉽다. 계절이 바뀌고 그에 따라 생태가 순조롭게 조응하는 것들은 각별하게 설명되거나 해석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천체의 운행과 생태의 질서를 일탈하는 현상들에서 성찰의 계기를 만난다. 여름에 찬서리가 내리고 겨울에 꽃이 피는 일탈이 빈번하게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는 고대인의 '광범한 일상'을 이미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오랜 시간을 경유하여 후대에 전승될 동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일상은 일탈의 반면으로 모습을 드러낸다.[3]

위의 논의에 따르면 일상의 모든 현상들을 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순조롭게 조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천체의 운행과 생태의 질서를 일탈하는 현상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곧 정치사회적 혼

---

3) 이강래, 「서장-고대의 경험과 중세의 인식」,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pp. 14-15; pp. 13-29.

란을 자연의 질서를 일탈한 재해의 현상으로 번역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일상의 순조로운 운행을 깨뜨리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이상한 징조가 출현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인 혼란과 겹쳐 읽음으로써 그 혼란을 자연 현상의 변화에 기대어 해석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고대의 역사 기록에서 천문(天紋)과 인문(人紋)을 겹쳐 읽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여기에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과 인식이 투영된 비유와 상징에 관한 해석이 요구된다. 알다시피 고대국가에서 해와 달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연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비유하는 상징물로도 여겨졌다. 또한 일식과 월식은 치명적인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흉조로 해석되기도 하였다.[4)]

재난을 기록하는 과정에 개입된 서술자의 태도와 더불어 재난은 역사 속의 다양한 국면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가령, 재난과 피난의 시각에서 정치사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데 역사 속의 민족 이동, 한국고대사에서 고조선의 이동은 재난과 재난에 대한 피난 활동, 중원왕조의 동진(東進)과 고조선의 동방으로의 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5)] 또한 재난의 관점에서 역사 속의 민란과 국가체제의 변동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신라 하대의 농민 반란과 이탈을 재이(災異)와 관련한 대응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진성여왕대의 농민반란은 신라 말의 누적된 정치·사회·경제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재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그 하나의 원인으로 덧붙일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고려사』

---

4) 신라사학회 편,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 경인문화사, 2006, pp. 37-38.

5) 김성한, 「한국 고대사 속의 재난과 이동-고조선의 영역 변천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제69집, 호남사학회, 2018, p. 99.

6) 이기봉, 「신라 진성여왕대의 재이와 농민반란」, 『역사학연구』제62집, 호남사학회, 2016, pp. 65-88.

를 비롯해 역사 기록들에서 자연의 이변을 왕권의 멸망이나 전쟁의 조짐 등 정치사회의 변동과 연관시켜 서술함으로써 재이(災異) 현상에서 '위기인식'을 포착하고 있는 장면들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7]

앞서 간략하게 읽은 것처럼 역사서에서는 재난의 경험을 '사실'에 근거해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재난을 해석하는 서술자의 태도와 당대인의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재난과 서사 사이에 다양한 정치적 맥락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서 기록의 성격과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과 설화,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에서도 재난의 다양한 기억들이 표현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문학예술적 상상력의 보고인 『삼국유사』에는 풍속, 신앙, 노래, 설화 등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몇 편의 설화들은 여러 재난의 상황에 직면해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에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의 이름은 그 자체로 재난의 발생과 극복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졌으므로" '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힘을 지녔다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 이름하였다.[8] 이는 피리소리로 바다가 일으키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왕이 소리(음악)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동일한 이치로 인식한 결과다. 또한 신라 융천사(融天師)가 부른 향가 「혜성가(彗星歌)」를 노래가 불러지기 전과 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읽어 보면, 그

---

7) 이정호, 「高麗前期 異變現象 기록을 통해본 災異觀과 위기인식 - 『高麗史』 五行志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제80집, 호서사학회, 2016, pp. 231-269.

8) 일연, 「기이(紀異) 제2」, 리상호 옮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글방, 1999, pp. 154-156.

노래는 재난이 출현한 상황을 해결하는 치유의 매개가 된다. 혜성의 출현이라는 기이한 천문 현상과 왜구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재난을 노래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다.[9]

한국의 『삼국유사』와 함께, 중국의 『산해경』을 재해와 재난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 볼 수 있다. 고대 중국과 주변 나라의 지명, 산천, 산물, 풍습, 의학, 역술, 제사 등을 기록하고 있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특이한 이미지와 설화적 상상력은 동아시아 서사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해, 재이, 질병 발생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식물들의 용도, 동물들의 생김새, 이미지와 설화 등을 묘사한 부분이 흥미롭다. 다음에서 보듯이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발생과 그 대응의 양상을 독특한 상상력과 이미지로 표현한다. 몇 부분을 간추려 인용해 본다.

> 다시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영구산이라는 곳인데 초목은 자라지 않고 불이 많다. 그 남쪽에 중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동북풍이 여기로부터 불어나온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올빼미 같은데 사람과 같은 얼굴에 네 개의 눈이 있고 귀도 달려 있다. 이름을 옹(顒)이라고

9) 『三國遺事』卷五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條.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 突處郎) 第七寶同郎 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卽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歌曰. ①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다→혜성이 사라졌다(천문) ② 일본병이 침략했다→일본병이 환국했다(역사) ③ 풍악에 놀러가는 것을 그만두었다→풍악에 놀러 보냈다(놀이)(『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같은 책, pp. 435-436). 노래 「혜성가」와 〈천전리(川前里) 암각화〉의 상징과 도상을 겹쳐 있을 때, 향가와 암각화는 재난의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한 흔적이 담긴 예술작품으로 보인다. 암각화는 하늘의 기이한 변화를 그린 천문도(天文圖)로서 인간 세계의 문제적 상황을 치유하는 주술적인 제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중고기 신라의 정치세력의 정신·사상사적 바탕을 보여주는 기록화(記錄畵)로서의 위치를 점한다.(한순미, 「언어문화적 상상력으로 읽어 본 〈천전리(川前里) 암각화〉」, 『국어국문학』제147집, 국어국문학회, 2007, pp. 79-101)

하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같다.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가문다.(又東西百里, 曰令丘之山, 無草木, 多火. 其南有谷焉, 曰中谷, 條風, 自是出. 有鳥焉, 其狀如梟, 人面西目而有耳, 其名曰顒, 其鳴自號也, 見則天下大旱)[10]

다시 동쪽으로 130리를 가면 광산이라는 곳인데 (…) 신 계몽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형상은 사람의 몸에 용의 머리를 하고 있다. 늘 장수의 깊은 곳에서 노니는데 물속을 드나들 때면 반드시 회오리 바람이 치고 폭우가 쏟아진다.(又東白三十里, 曰光山, 其上多碧, 其下多木, 神計蒙處之, 其狀人身而龍水, 恆遊于漳淵, 出入必有飄風暴雨)[11]

다시 서쪽으로 20리를 가면 복주산이라는 곳인데 (…)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올빼미 같은데 외다리에 돼지의 꼬리가 있다. 이름을 기종(跂踵)이라고 하며 이것이 나타나면 그 나라에 큰 돌림병이 생긴다.(又西二十里, 曰復州之山, 其木多檀, 其陽多黃金. 有鳥焉, 其狀如鴞而一足彘尾, 其名曰跂踵, 見則其國大疫)[12]

다시 북쪽으로 200리를 가면 북악산이라는 곳인데 탱자나무, 가시나무와 단단한 나무가 많이 자란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소 같은 데 뿔이 넷이며 사람의 눈, 돼지의 귀를 하고 있다. 이름을 제회(諸懷)라고 하며 그 소리는 기러기가 우는 것 같고 사람을 잡아 먹는다. 제회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효수에 흘러드는데, 그 속에는 지어(鮨魚)가 많다. 지어는 물고기의 몸에 개의 머리를 하고 그 소리는 어린 아이 같은데 이것을 먹으면 미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又北二百里, 曰北嶽之山, 多枳棘剛木. 有獸焉, 其狀如牛, 而四角, 人目, 彘耳, 其名曰諸懷, 其音如鳴鴈, 是食人. 諸懷之水出焉, 而西流注于蘱水, 其中多鮨魚, 魚身而犬首, 其音如嬰兒, 食之已狂.)[13]

---

10) 「남산경」,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1985/2008, p. 67.
11) 「중산경」, 『산해경』, 같은 책, p. 191.
12) 「중산경」, 『산해경』, 같은 책, pp. 202-203.
13) 「북산경」, 『산해경』, 같은 책, pp. 118-119.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재난의 상황과 그 해결의 과정을 전개하는 서술 방식이다. 먼저 어떤 곳의 지명을 언급한 후, 그 지리적 위치와 환경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특이한 식물들의 생태나 물고기, 동물들의 생김새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갖가지 생물들은 제각기 독특한 이름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인간인지 동물인지 경계가 모호한데 기근,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이 들게 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어떤 짐승이 나타나면 돌림병이 생기며 어떤 물고기를 먹으면 미친병이 낫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의 태도는 지명과 장소, 생명의 밀접한 조응 관계를 드러낸다. 땅이름이 곧 재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은 재난의 상황을 야기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지명과 생명, 질병, 그리고 재난과 치유의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속되어 있다. 이는 자연, 인간, 세계를 동근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투영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난을 기록하는 방식은 자연, 인간,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와 상관된다.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면서 인간과 국가, 역사의 위기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몇 편의 설화에서 보듯이 자연이 일으키는 재앙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고대인들의 자연관, 세계관, 정치관, 예술관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근대와 근대의 재난 기록은 그 유형과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간단하게 비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근대 시기 재난은 천문관, 자연관, 운명론 등 종교적인 사유와 결속되어 있었다면 근대 이후 재난은 자연을 지배와 개발의 대상으로 여겨온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는 한편 진보의 신화,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의 계기가 된다.

아울러 역사 기록 속 재난에 대한 서술 태도에 주목해 본다면, 전근대와 근대 시기에 재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사화해 왔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둘 점은 재난은 한 국가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 동아시아라는 단위에서 다룰 문제라는 점이다.[14] 따라서 재난을 공통으로 경험한 동아시아는 재난 기록을 읽는 방법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한편, 역사 기록 속의 재난들은 상이한 시기에 일어난 재난들을 서로 연결해 동일성과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한다. 가령 1927년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해상 사고와 전근대 시기, 그리고 최근 세월호 참사는 '기시감'을 주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양상은 "그 사회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15] 동일한 유형의 재난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해도, 기록 속의 재난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기입된다. 즉 재난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므로 기록 속의 재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해석될 가능성을 지닌 잠재성을 갖는다.

---

1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해일(海溢)로 검색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조선시대에 해일의 규모와 빈도, 피해상황과 시공간적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조선시대에 지진해일과 주변 지진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일본 홋카이도 남서해역과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해일이 조선시대 지진해일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영・최지은・박경・양보경, 「조선시대 자연재해 기록에 대한 일고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해일 기록을 중심으로」, 『應用地理』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14, pp. 12-15)

15) 이기훈, 「사고와 재난의 근대성 1-해상교통」, 『문화과학』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p. 336.

3. 전염병의 인식과 서사

1) 전염의 공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염병은 마을, 도시, 국가의 질서를 일시에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사회적 재난에 속한다. 고대 중국의 상상적 지리지인『산해경』에도 등장하듯이 숱한 재난 중에서 "돌림병"은 보이지 않는 전염균에 대한 상상과 예측하지 못한 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큰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했다. 또한 전염병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경의 성격을 지닌 재난으로, 단순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국가 간의 장벽을 넘나드는 대재앙으로 인식되었다.

대규모로 발생한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그러한 전염병을 당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에 남겼는지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전염병의 창궐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의례와 제도, 민간적 차원에서의 속신, 민속, 신앙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해결책들이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염병의 공포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사화했는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질병사에서 전염병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16] 전염병과 관련해 역사 속의 몇 장면만을 요약해 보더라도 전염병이 정치, 종교, 민속신앙 등 문화 전반의 변화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사찰이 전염병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7] 해외 교류가 활발하고 전쟁도 빈번했

16) 대한감염학회 편,『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17) "전문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한국 고대 사회에서 승려는 치유 능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으며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던 흥륜사와 하대에 창건되어 신라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해인사의 경우, 두 사찰 모두 신라 왕실의 공주와 왕비의 질병치료를 해 준 인연으로 창건되었다는

던 고려시대에는 12세기 중엽의 기후 한랭화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전염병은 고려 사회와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18] 전염병은 민간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재앙으로 인식해 다양한 구제책이 마련되었다.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는 "예방보다 발병 환자의 구료나 민심 위안 차원의 여제(厲祭) 등이 행해졌고" 개인적인 대응책으로는 재앙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면서 "도망이나 무속적인 기양법(祈禳法)이 주류를 이루었다."[19] 당대의 문학작품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피폐한 생활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유행시에는 "자식을 굶주려 죽인 끝에 먹기도 하였고", "3~4세의 어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굶어죽어가는 데도 자신의 죽그릇을 그러잡고 죽을 퍼먹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했다.[20]

근대 이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회와 국가, 민간의 대응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종교 의례, 민속신앙, 소문과 이야기 등에서 읽을 수 있다.

> 국가 차원에서는 역병 귀신을 쫓는 여제(厲祭)를 베풀었다. 여제는 역병이라는 재앙에 국가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치장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억울한 원혼 따위가 뭉쳐져 원기(冤氣)가 된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흩어져 재앙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 전국에 역병이 크게 돌면 정부에서는 여제를 지낼 제관

설화가 전해진다."(이현숙, 「치유 공간으로서의 한국고대 사찰 - 신라 흥륜사를 중심으로 -」, 『신라사학보』제46집, 신라사학회, 2019, p. 190; 이현숙, 「고려 불교 의학의 한 단면: 승려의 질병과 치료」, 『한국중세사연구』제48집, 한국중세사학회, 2017, pp. 261-293)

18) 김영미 · 이현숙 외, 『고려전염병의 문화사』, 혜안, 2009.

19)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도서출판 한울, 1997, p. 23.

20) 신동원, 앞의 책, 1997, pp. 25-26.

> 을 뽑아 축문과 향을 주어 유행지역에 파견했다. (…) "콜레라 귀신을 막으려는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 제물로 짐승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둘레에는 왕이 보낸 궁신(宮臣) 몇 사람이 제관 자격으로 남아 있었다"(『구한말비록』)는 에비슨의 언급은 고종 말년 서울에서 행해진 한 여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제는 조선 초부터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존속했다.[21]
>
> 조선의 귀신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삶에서 재앙의 절반은 이 귀신이 한 짓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귀신신앙은 곧 양귀신앙(禳鬼信仰)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에서 귀신신앙은 양귀에 의해 재앙을 없애고, 나아가 삶의 행복을 완전하게 하려는 소극적 생활유지의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발달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그 욕구가 치열한 만큼 귀신의 활동을 더욱 번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22]
>
> 해방 직후 해변 지방에 콜레라가 만연되자, 큰동네와 새텃몰 사람들은 이 무서운 역신을 막기 위해 고춧불을 피우고, 마룻장에 바가지를 문질러서 여우 울음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한 소리를 내곤 했었는데, 그 소문은 그 비그덕거림처럼 온 마을을 들썽거리게 하며 싸고 돌았다.[23]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국가에서는 역병 귀신을 쫓기 위한 의례를 거행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모든 재앙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재앙을 부르는 귀신을 물리치는 신앙이 성행했다. 천연두나 감기 등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

---

21)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2009, pp. 49-50.

22) 무라야마 지준, 『조신의 귀신』 조사자료 제25집(조선총독부, 1929), p. 5. 노무라 신이치, 최순애・요시무라 미카 옮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론」, 무라야마 지준 사진집 『조선인의 생로병사: 1920~1930년대』(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기획), 신아출판사, 2014, p. 248.

23) 한승원, 장편 『해일: 2부 그 바다, 끓며 넘치며』, 범조사, 1991, p. 179.

로 지역마다 새로운 민속이 생겨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천연두가 퍼졌을 때 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으로 아이를 지켰"고 "평안남도에서는 소년의 유행성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 가느다란 새끼줄을 스물한 번 꼬아서 목에 걸어두었다."[24]고 한다. 한승원의 소설에서는 해방 직후 바닷가 마을에 콜레라가 만연하자 역신(疫神)을 막기 위해 민간요법이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됐다.

위의 예시들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 인식과 그 해결책을 보여준다. 또한 전염병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 재난과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전염병의 유행에 따른 대응 방식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사회의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고 방역, 보건정책, 국민의식의 개선 등 일련의 제도들을 바꾼다. 아울러 전염병의 발병과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면서 의료 제도와 일상의 풍속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결핵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인식되었는데 "당시에도 불치병은 아니었으나 대다수 환자들이 가난 때문에 병을 키웠고, 가족에게 전염시켰다."[25] 이에 미군정 하의 보건후생부는 "전재민의 귀환에 따른 전염병 위협"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티푸스, 두창,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을 방역대상으로 정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DDT 살포가 이어졌으며, 콜레라와 페스트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실시되었다."[26]

---

24) 무라야마 지준 사진집『조선인의 생로병사: 1920~1930년대』, 앞의 책, pp. 42-43.

25) 전우용,『현대인의 탄생: 해방~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의료』, 이순, 2011/2012, p. 83.

26)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박윤형·박윤재,『한국의학사』, 대한의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염의 공포를 야기하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치 체제, 사회 전반의 변동을 가져왔다.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양상은 당대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은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역사적 재난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지점에서 해석할 대상이다. 전염병의 기억과 인식은 서사화 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각과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2) 전염병의 서사적 그물망

여러 질병들 중에서 특히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전염의 공포가 일으키는 다양한 상상과 공동체의 상이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에, 지역과 국가 간의 기록들을 따로 분리해서 읽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접경 지역, 문화 교류 등 병균의 접촉과 이동의 경로, 전파의 양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대조하면서 섬세하게 읽기를 요구한다. 질병의 기원과 전파의 경로에 관한 기록은 각국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전염병의 경우 질병의 유래와 전파, 그리고 이동의 경로와 소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국제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민감하게 다룰 주제이다. 무엇보다 각기 다른 인식이 투영된 결과, 중층적인 '서사적 그물망'으로 짜인 기록들은 예민한 논점을 제기한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만성 전염병(Chronic Epidemic Disease)에 해당하는 나병(한센병)의 유래와 발생원인, 이동 경로와 소멸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입장에서 한센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p. 306.

관심을 두고 읽어보려 한다.

나병의 전파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해답은 구할 수 없으나 중국과 접해 있는 북부 지방에 상대적으로 나환자가 없었고 해로를 통한 당나라와의 교역 문호였던 중부 서해안(현 충남 당진 중심)에도 그러했던 반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집중되었던 점에 근거하여 일본으로부터 전파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나병이 언제 어떤 경로를 따라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헌(『日本書記』, 『元亨譯書』, 『日本癩病史』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고대 이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다.[27]

歷史的 記錄에 의하면 臺灣에서는 약 300년 전에 이미 나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臺灣 나병의 由來는 아마도 인근 국가와의 文化交流와 通商관계 내지는 大陸移民에 의해 轉入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中國정부에서는 이미 600년 전 元나라 시절에 臺灣 彭湖에 큰 防波堤工事를 한 일이 있으며, 일본이 대만을 점령할 때에는 적지 않은 나병환자들이 琉球에서 건너왔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940년 일본의 나환자 총수는 15,763명이 있는데 그 中에서 琉球환자가 1,308명이었다. 당시 日本은 人口 1만 명에 나병환자 平均比率은 2.16%였는데, 琉球의 비율은 22.76%였다. 이렇게 나병이 많은 琉球지역과 臺灣이 交通했기 때문에 자연히 나병이 傳入할 기회도 많았었다./ 한편 明나라의 鄭成功 장군이 臺灣을 공격할 때 그의 10만 대군은 大部分 나병의 유행지역인 廣東省 福建省 출신들이었으며, 鄭成功이 臺灣에 기초를 닦은 후 臺灣으로 移民온 사람들도 거의 전부가 역시 華南一帶의 나병 농후지대 住民들이었다. 淸나라가 臺灣을 접수하여 관장할 시기에는 大陸연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臺灣으로 移民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환자 수는 적지 않았다./ 1736년 대만 彰化縣 懸長 秦士望은 나환자의 전염을 막기 위해 救濟院을 設立하여 나환자의 收容을 제창하였으며 나환자와 梅毒환자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 수용했었다.[28]

---

27) 대한나관리협회, 「제2절. 나병의 전파」, 『韓國癩病史』, 1988, p. 46.

28) 신정하, 기행문 「臺灣 香港의 癩園을 찾아서」(1), 『새빛』 1972.6, 새빛사,

> 한센병 역시 동아시아에서 로마제국으로 전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 / 한센병이 기승을 부렸던 시기는 중세 말기였다. 1070년부터 1130년까지 한센병 환자 수용소가 급증하다가 1250년부터 1550년 사이에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였다. 한센병이 사그라진 원인으로는 결핵균의 등장이 지적된다. 결핵균과 나균은 같은 미코박테리움 속(屬)에 속하는 유사균으로 결핵균이 득세하면서 나균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센병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의 하나는 『황제내경』이고, 나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4세기 거홍의 『주후방』에서였다(중국에서는 현재 마풍(痲瘋)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센병의 동아시아 전파경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도 잠복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외관상 구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집단 격리 생활을 하였고,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시설이 운용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종과 문종 시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치료 및 수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29]

먼저 대한나관리협회에서 발간한 『韓國癩病史』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나병은, 중국과 인접한 지역보다 일본과 접경을 이룬 지역에서 환자의 발병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일본에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본의 나병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래된 기록 속에 나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놓는다.

한편 나병 계몽 잡지 『새빛』을 발간하는 데에 참여한 신정하의 기행문 「臺灣 香港의 癩園을 찾아서」에서는 대만의 나병이 중국과 류큐(琉球) 등 인근 국가와의 교류, 전쟁과 통상무역, 공사, 이민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본다. 그는 "인근 국가와의 文化交流와 通商관계 내지는 大陸移民에 의해 轉入"을 나병의 주

---

pp. 10-11.

29) 신규환, 「만성전염병과 성병의 사회사」,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6, pp. 45-46.

요한 전파 경로로 추정한다. 이러한 서술은 "나병이 많은 琉球지역과 臺灣이 交通했기 때문에 자연히 나병이 傳入할 기회도 많았"다는 점과,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臺灣으로 移民온 사람들도 거의 전부가 역시 華南一帶의 나병 농후지대 住民들"로서 "臺灣으로 移民"한 사람들에 의해 전염되었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신규환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에서는 『황제내경』과 『조선왕조실록』 등 동아시아 의학서 및 역사서들을 인용해 질병의 명칭, 질병에 대한 인식, 격리 수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드러낸다. 그 가운데 주의를 끄는 부분은 한센병이 결핵균의 등장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질병들이 경합하다가 사라지는 과정, 질병들 사이의 경쟁 관계 속에서 전염병의 역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센병, 결핵, 페스트, 성병 등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엔 긴 잠복기로 인해 그 기록들은 오랜 역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과 함께 표상과 인식의 변화,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질병에 관한 인식은 정치사회적 상황, 시대적 분위기,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 그리고 질병의 성격에 따라 당대의 문학예술 속에 재현된 이미지와 상징의 의미도 달라진다.[30] 이는 매우 정치적인 논점이다.

다음에 인용한 셸던 와츠의 『전염병과 역사』와 마릴린 체이스의 『격리』는 질병에 관한 기록들을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인데, "매독"과 "페스트"에 관한 여러 입장들을 교차 서술하고 있어서 섬세한 읽기를 요한다.

---

30) 예를 들어, 성병은 신체적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식민지와 근대화라는 배경, 성문화의 등장 등 친밀성 구조의 변동과 관련해 다루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하의 문학에서 성병은 근대의 타락과 부정성을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최은경,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성병」, 『감염병과 인문학』(정과리 · 이일학 외), 강, 2014, pp. 99-128)

1930년대 공산주의자들(그다음에는 미래의 물결)은 매독을 중국의 타락, 도덕적 열등함, 서구에 대한 비굴함을 가장 잘 상징하는 병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에 권력을 잡자마자 이러한 입장의 논리적 귀결로서 매독 소멸 운동을 시작했다. 우선 도시의 매춘굴 포주들이 척결되었고, "불량배, 마약 밀매자, 깡패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분노한 인민 대중들에 의해 직접 처리되었다." 이러한 숙청이 진행된 후, 정부의 조사관들은 내륙의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질문이 적힌 종이를 들고 최근에 피부병이나 성병, 종기 같은 것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종이에 답변할 것을 점잖게 요구했다. 이런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는 문맹들은 글을 아는 이웃에게 대신 문서에 답변을 적는 일을 거들게 했다./ 그래서 매독 환자를 가려낸다는 가면을 쓰고, 수세대 동안 곪아왔던 이웃 종족들 간의 불화는 결정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종족 쪽으로 기울었다.[31]

기록을 살펴보면, 시청은 훨씬 이전인 188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차이나타운의 위생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중국인들은 인류가 행하는 천한 짓들 중 가장 천박한 습관(도박, 아편, 매춘)을 이곳으로 들여 와 번창시켰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름끼치는 부도덕이라는 병균을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원천을 통해, 가장 무서운 질병을 전염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피를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존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전 인류와 자기 자신에 대해 저주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연주창(목 부분 림프절에 생기는 결핵-역자 주)과 나병 희생자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후손들을 퍼트리는 것 또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난과 대비되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유행병이 무섭게 번져 중국 대륙 전역에서 많은 목숨을 휩쓸어 갔다는 소식이 홍콩에서 들려왔다. 1988년까지 중

31) 셸던 와츠, 태경섭·한창호 공역, 「4. 은밀한 전염병: 1492-1965년까지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매독」, 『전염병과 역사: 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시켰는가』, 모티브북, 2009, pp. 282-283.

> 기선과 범선들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전염병을 옮겼다. 열이 나고 선(腺)이 붓다가 갑자기 죽는 환자들이 호놀룰루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했다. 페스트가 상륙했음을 인식한 시의 보건국은 전염병이 발생한 집들을 태워 버리라고 명령했다. (…) 연기가 가셨을 때는 호놀루루에 살던 6천 명의 중국인들이 집을 잃은 상태였다.[32]

인용한 첫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30년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매독'은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은유임과 동시에 낙인의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아울러 눈에 띄는 대목은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매독 소멸 운동"의 일환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조사관들의 모습이다. 전염병에 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인민 대중의 일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문자해독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문맹인들을 포함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한 대목이다.

다음의 기록은 199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의 10여 년에 걸쳐 유행한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싸운 한 도시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 책은 당대의 대재앙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참조하면서 재구성하고 있는데, "188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차이나타운의 위생상태"를 인용하면서 "부도덕이라는 병균을 접종"시키는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위협"의 감정이 표출된 것을 주목한다. 여기에서 전염병이 한 사회와 국가 내에 자리한 인종차별적인 인식과 감정적 갈등, 윤리적인 기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은 질병에 관한 복잡한 감정과 인식의 변화를

---

32) 마릴린 체이스, 어윤금 옮김, 『격리-전염병에 맞서 싸운 한 도시의 기록』, 북키앙, 2003, pp. 22-23.

초래하면서 사회와 국가, 민족과 인종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수반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 동아시아 질병사 연구는 질병이 동아시아 근대국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근대국가의 위생의료체제, 예방,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요청한다.[33] 다음은 질병 관리 정책, 질병으로 인한 이동의 경로, 일상의 풍속 등을 통해 질병 인식의 역사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중국의 농민들이 벼농사를 위해 오랫동안 고인 물에서 작업하게 되면서 각종 질병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질병이 점진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지는 않았다. 충분한 인구증가 없이는 계속되는 제방이나 수로망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물며 늘어만 갔던 군대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말에 기술적 진보와 안정된 국가행정기구, 그리고 윤리적 기반이 갖추어져 중국이 중남부로 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출을 억제한 것은 질병 이외에는 없었다. 질병의 장애가 얼마나 컸는지는, 한나라의 개척자들이 양자강 유역에 많이 이주해서 정착하는데 5세기 내지 6세기가 걸렸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쉽게 표현하면, 춥고 습도가 낮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빠른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34]

요컨대, 중국 고대 농경사회의 조건에서 발생한 각종 질병들은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인력들을 보충하지 않으면

---

33) 신규환, 「동아시아 근대세계에서 질병이 왜 중요한가」,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앞의 책, pp. 12-13.

34) 윌리엄 맥닐, 허정 옮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 1992/2009, p. 103.

안 되는 건설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질병은 이주, 정착, 개발의 과정에서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질병은 인구의 증가와 감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미셸 푸코의 논의를 다시 인용해 말하면, 일정한 개인들을 죽게 만드는 식량 부족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구(population)'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분명해진다.[35]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이후에, 생명과 삶을 통제 관리하는 안전장치와 통치성이 결속된 지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들의 통치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전염병의 역사는 각국의 특수한 지점을 살피는 것과 함께 식민지배 하의 격리 수용 시설 및 치료 정책 등 광범위한 시각에서 고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가운데 질병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전염병을 어떻게 표상하고 재현해 왔는지를 환자들의 증언과 구술을 통해서 읽어 보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36]

전염병의 서사적 그물망은 질병 간의 경쟁 관계, 각국의 질병

35) 미셸 푸코, 심세광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pp. 77-78.

36) 그 하나의 예시로, 일본 오키나와 한센병사에서 1945년경 미군의 공습이 한센인에게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언급할 수 있다. 13세에 전쟁을 경험한 애락원 자치회의 부회장은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한센병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정근식, 「오키나와 한센병사에서의 절대격리체제의 형성과 변이: 미군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3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p. 196) 미군 공습으로 인해 건물 파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지속되는 전쟁 중에 치료약의 부족, 주거환경의 불결함, 위생청결 문제 등이 이질과 한센병을 발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한센인에겐 자신이 겪고 있는 한센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을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관리 정책, 수용소 시설 등을 포함해 질병의 외연을 이루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교차해 읽을 때 지역, 사회, 국가의 인식과 그 대응 방식의 변별적인 지점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나오며

재난의 역사 기록은 재난의 기억과 인식, 그리고 재난의 극복과 치유 과정을 복잡한 층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또한 재난 기록은 기나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술자의 태도와 인식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 기록 속의 재난 유형과 양상을 살피는 일은 중층적인 '서사적 그물망'으로 짜인 인식의 겹을 주의 깊게 읽는 작업을 요구한다.

역사 기록 속의 재난을 해석할 때에 전근대 시기와 근대 이후의 재난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근대 이후 재난의 성격과 양상은 전통 시기와 차별되며 그 서사와 치유의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근대 이전과 이후의 재난 기록들을 천문관, 자연관, 세계관을 비롯해 재난의 위기에 관한 인식과 그 치유의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역사적 재난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염병은 자연환경, 지역적 조건과 더불어 전쟁, 테러, 혁명 등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를 마비시킨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염의 공포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치 체제의 변동과 질병에 대한 인식, 문화 전반의 변화와 상관된다. 아울러 전염병의 역사를 보다 미시적인 층위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야 한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재난을 연구하는 일은 역사 기록 속의 다양

한 재난들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이 일상이 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다시 진단하고 새로운 물음들을 제기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기록 속의 재난들을 통해서 재난을 사유하고 서사화 해왔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지금 우리 시대의 재난을 해석하는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4·3, 분단과 전쟁, 광주5·18, 후쿠시마, 세월호 등 현대사 속의 재난들이 초래한 트라우마와 심성의 변화, 그리고 치유의 다채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고통의 흔적과 은폐된 기억의 파편들을 새로운 그물망으로 엮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대상과 범위를 달리해 기억, 서사, 치유의 관점에서 재난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재난 기록들이 지닌 문맥을 더욱 풍부하게 비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성한, 「한국 고대사 속의 재난과 이동 – 고조선의 영역 변천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제69집, 호남사학회, 2018, pp. 99–128.

박선영·최지은·박경·양보경, 「조선시대 자연재해 기록에 대한 일고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해일 기록을 중심으로」, 『應用地理』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14, pp. 1–19.

신정하, 「臺灣 香港의 癩園을 찾아서」(1), 『새빛』 1972.6, 새빛사.

이기봉, 「신라 진성여왕대의 재이와 농민반란」, 『역사학연구』제62집, 호남사학회, 2016, pp. 65–88.

이기훈, 「사고와 재난의 근대성 1–해상교통」, 『문화과학』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pp. 334–356.

이정호, 「高麗前期 異變現象 기록을 통해본 災異觀과 위기인식 – 『高麗史』 五行志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제80집, 호서사학회, 2016, pp. 231–269.

이현숙, 「고려 불교 의학의 한 단면: 승려의 질병과 치료」, 『한국중세사연구』 제48집, 한국중세사학회, 2017, pp. 261–293.
_____, 「치유 공간으로서의 한국고대 사찰 – 신라 흥륜사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제46집, 신라사학회, 2019, pp. 187–217.
정근식, 「오키나와 한센병사에서의 절대격리체제의 형성과 변이: 미군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73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pp. 185–220.
한순미, 「언어문화적 상상력으로 읽어 본 〈천전리(川前里) 암각화〉」, 『국어국문학』제147집, 국어국문학회, 2007, pp. 79–101.
한순미, 「세계를 바라보는 다초점 렌즈로서의 재난(인)문학」, 『동서비교문학저널』제50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9, pp. 287–308.

2. 단행본

김부식,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1998/2007.
김영미 · 이현숙 외, 『고려전염병의 문화사』, 혜안, 2009.
대한나관리협회, 『韓國癩病史』, 1988.
대한감염학회 편,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6.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도서출판 한울, 1997.
_____,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2009.
신라사학회 편,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 경인문화사, 2006.
여인석 · 이현숙 · 김성수 · 신규환 · 박윤형 · 박윤재, 『한국의학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이강래,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일 연, 리상호 옮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글방, 1999.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해방~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 의료』, 이순, 2011/2012.
최은경,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성병」, 『감염병과 인문학』(정과리 · 이일학 외), 강, 2014, pp. 99~128.
한승원, 장편 『해일: 2부 그 바다, 끓며 넘치며』, 범조사, 1991.
노무라 신이치, 최순애 · 요시무라 미카 옮김, 무라야마 지준 사진집 『조선인의 생로병사: 1920~1930년대』(건국대학교 아시아 · 디아스포라연구소 기획), 신아출판사, 2014.

『산해경』, 정재서 역주, 민음사, 1985/2008.
마릴린 체이스, 어윤금 옮김, 『격리-전염병에 맞서 싸운 한 도시의 기록』, 북키앙, 2003.
미셸 푸코, 심세광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셸던 와츠, 태경섭・한창호 공역, 『전염병과 역사: 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시켰는가』, 모티브북, 2009.
윌리엄 맥닐, 허정 옮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 1992/2009.

(**투고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3. 18 **게재확정일**: 2020. 3. 20)

한순미
소 속: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교수연구동 515호
전자우편: specialcloud@naver.com

[Abstract]

Narrative Crossing with Disaster
: The Method for Reading Disaster in Historical Records

Han, Soon-mi

This paper has the central question as follows: How to read disasters in the historical records from the viewpoint of humanities? This study tries to pay attention to the layers of the narrative that intersect with disasters.

Disaster records intersect privileged memories and marginalized memories at the same time. Disaster records inevitably involve the position and perspective of the subject describing the experience and memory. When re-reading disaster records, we should not overlook the attitude of describing and narrating disastrous situation, namely the political context at which memory and narrative intersect.

Disaster brings other disasters. Epidemic diseases transcend the boundaries and connect with many problems. The Infectious diseases have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The narrative netting in epidemic records shows the origin and position of disease propagati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the exchange patterns and diseases between countrie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methodology of Disaster-Humanities research by suggesting a method of reading disasters in historical records. I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research methodology by changing the scope of research and period.

Key words: Disaster Humanities, Disaster Chronology, Memory and Cognition of disaster, Privileged memories and Marginalized memories, Attitude of Narration, Narrative Crossing with disaster, Narrative netting of Infectious (Contagious) diseases